

데이빗리 목사

느헤미야반교재



홀리타임즈

제 1 장 느헤미야 개론

1. 소개

느헤미야서는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책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성벽 재건(느 1-7장)과 느헤미야에 의해서 시행된 종교개혁(느 8-13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으나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두 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리겐(Origen)이 처음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구분했으며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별개이트성경)에도 역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구분했습니다.

2. 저자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저자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느헤

미야도 저자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라가 회상하는 내용(느 1:1-7:5; 12:27-43; 13:4-31 등)부분은 느헤미야가 썼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자신을 언급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느헤미야 자신이 저자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3. 기록 배경 및 목적: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동안 포로로 잡아들인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BC 539년)을 내렸지만 바사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남아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다. 그는 아닥사스다 1세(BC 464-424)의 술말은 관원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훼파된 채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왕에게 예루살렘 가게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왕은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마리아인 산발랏과 암몬인 도비야, 그리고 아랍인 게셈 등의 방해를 받아 성벽 재건을 할 수 없었

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독려하여 영적개혁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영적으로 회복되는 유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4. 특징:

일인칭 관점에서 쓰여진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제공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을 낭독하게 했습니다(느 8:1-12).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준수하게 했습니다(느 8:13-18).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 백성들은 7월 24일에 금식하며 회개했으며(느 9:1-38), 결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느 9:38)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고 이방인을 통해 낳은 자녀를 내 쫓을 것을 서약했습니다(10장).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느 13:1-9). 또한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느 13:15-22).

5. 내용분해

가. 예루살렘 귀환과 성곽 건축 (1:1-7:73)

- 1)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소식 청취 (1:1-11)
- 2) 느헤미야의 청원 승인 (2:1-9)
- 3) 예루살렘 성곽 수축 공사 완성 (2:10-7:4)
- 4) 바벨론에서의 귀환자의 명단 (7:5-73)
- 5)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 (8:1-13:31)

나. 율법책 낭독 (8:1-18)

- 1) 회개의 모임(9:1-37)
- 2) 개혁을 위한 서약 (9:38-10:39)
- 3) 거주지 배정(11:1-36)
- 4) 예루살렘 성곽 봉헌 (12:1-47)
- 5) 성별과 성전 청결 (13:1-31)

제2장 귀환 전의 느헤미야

1.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느 1:1-4).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이 훼파될 때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이 훼파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의 성이 훼파된 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느헤미야는 죄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느 1:9). 우리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나는 죄 지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거하게 될 것

[느 1:1]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더니

[느 1:2]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느 1:3]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느 1: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 1:9]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여잡은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당신도 느헤미야처럼 그 말씀을 부여잡으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3.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느헤미야의 요구를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줬습니다(느 2:1-8).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나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느헤미야의 요구에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 주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요구를 들어 주실까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당신의 간구는 얼마나 들어 응답되고 있습니까?

4.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서편 총독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들은 근심하였습니다(느 2:10). 이는 저들이 유다 백성의 하는 일을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반대하는 자보다 더 근심에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서편

[느 2:1]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느 2: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 2:3]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느 2:4]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 2:5]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 2:6] 그 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 2:7]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 2:8]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총독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왜 저들은 근심했을까요? 혹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대자보다 더욱 근심에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느 2:10]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제3장 성벽재건을 착수함

1.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둘러봤습니다(느 2:11-16). 이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악한 세력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악한 세력의 방해 를 받지 않기 위해 주의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느헤미아는 왜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둘러봤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왜 악한 세력의 방해 를 주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악한 세력의 방해 때문에 제대로 일을 행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2.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을 때 느헤미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성벽 재건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방해자들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고 했습니다(느 2:19-20).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는 자는 하늘의 기업이

[느 2:12]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하시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 2:13]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느 2:14]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 2:15] 그 밤에 시내를 좇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나

[느 2:16]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느 2:19]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나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느 2:20]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없을 것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산발랏과 도비아와 계셈이 성벽을 재건하려는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없을 것임을 믿습니까?

3.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백성들이 힘을 다할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습니다(느 3:1). 백성의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아야 역사는 이뤄집니다. 나는 지도자로서 먼저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왜 지도자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신은 지도자로서 먼저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4.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도울 때에 그 지역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느 3:5). 이는 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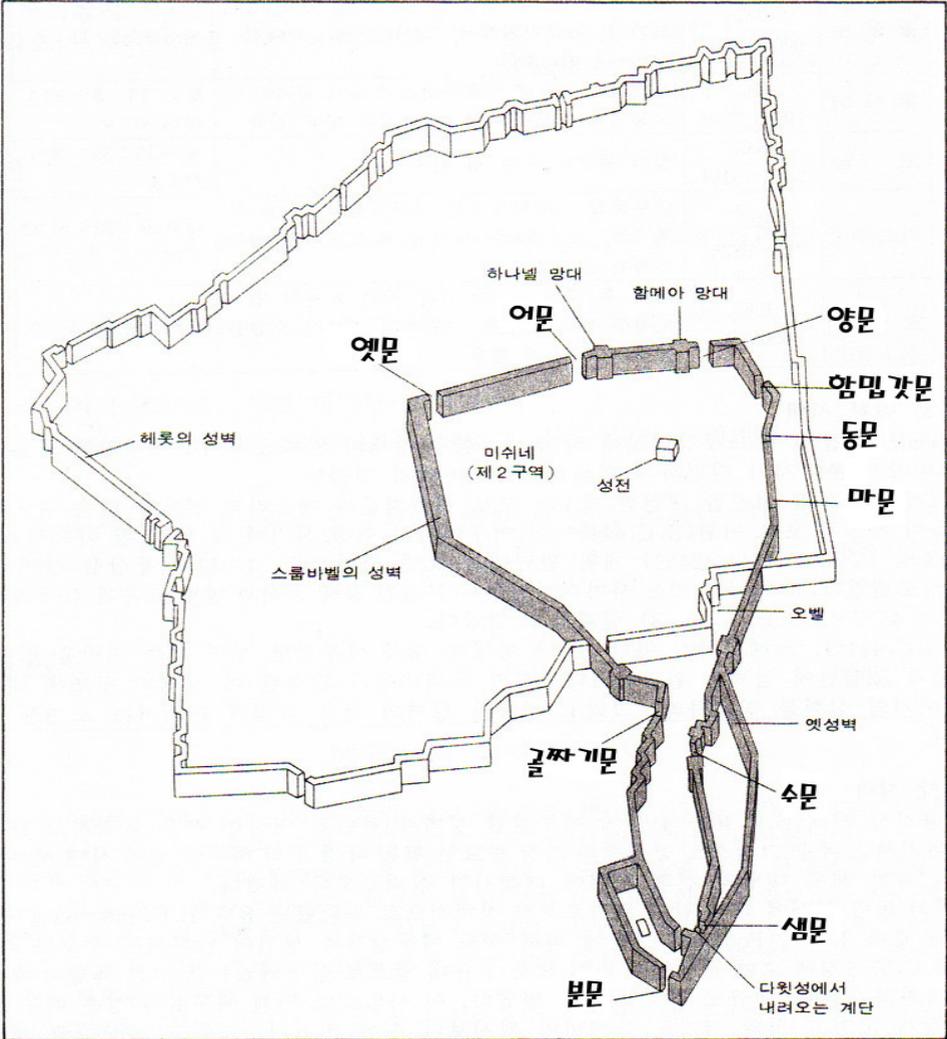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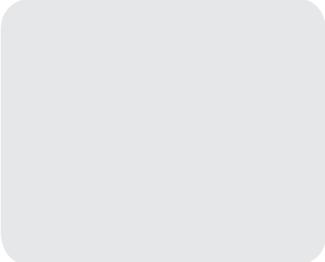
▶ (그룹제안):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 3:1]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 3: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치 아니하였으며

도울 때에 그곳의 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곳 귀족들이 성벽재건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혹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5. 학교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므레못은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까지 중수작업을 했습니다(느 3:21). 대제사장의 집이 그만큼 넓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분으로 권력을 부리고 부를 축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행여 하나님의 주신 직분으로 권력을 부리고 부를 축척하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므레못이 성벽 재건을 위해 담당했던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왜 대제사장의 집은 그렇게 넓었던 것일까요? 혹은 나는 하나님의 주신 직분으로 권력을 부리고 부를 축척하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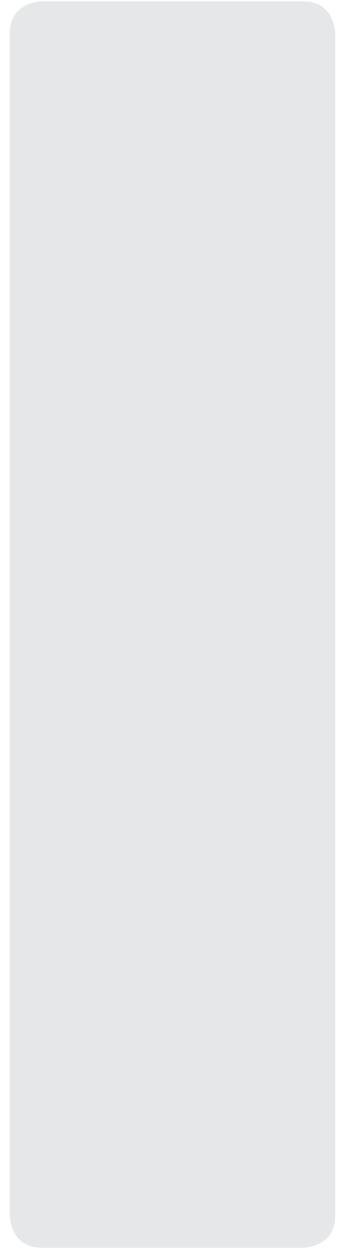
6. 성벽 재건의 마지막 부분은 금장색과 상고들이 맡았습니다(느 3:32). 이들은 상공업자로서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란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성벽 재건의 마지막 부분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성벽 재건의 시작은 누가 담당했습니까? 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시작을 대제사장이 담당하게 하고 마지막 부분을 보잘 것 없는 사람들에게 담당을 시켰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느 3:21] 그 다음은 학교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므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느 3:32]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을 믿습니까?



제 4 장 성벽재건의 방해자

1. 유다 백성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며 유다 백성을 비웃었습니다(느 4:1-2). 암몬 사람 도비야는 유다 백성이 재건하는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약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비웃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비웃음을 당하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유다 백성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산발랏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도비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혹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비웃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2. 산발랏의 무리들이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마음들여 역사했기 때문입니다(느 4:6).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함께 열심으로 일할 때에 역사는 이뤄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느 4:1]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느 4: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역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하고

[느 4: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백성과 뜻을 함께 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도도록 돕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산발랏의 무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백성들과 뜻을 함께 하며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까?

3. 산발랏의 무리들이 성벽이 재건되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가 쳐서 요란하게 할때에 유다 백성들은 힘이 쇠하여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낙담했습니다(느 4:10). 악한 자의 방해는 우리의 힘과 마음을 빼앗습니다. 나는 악한 자에 의해 힘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 (그룹제안): 산발랏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 왔을 때 유다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혹 당신은 악한 자의 방해로 인해 힘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습니까?

4.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방해로 인해 낙담에 빠져 있는 백성을 다시 규합하여 산발랏을 대적케 했습니다(느 4:14). 오직 하나님께서

[느 4: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느 4: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

저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능히 성벽을 재건케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악한 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산발랏으로 인해 백성이 낙담에 빠져 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혹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들과 함께 낙담에 빠지지 않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악한 자를 대적합니까?

5.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느 4:16-17). 이는 성벽재건과 함께 산발랏 무리의 침공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악의 세력을 방어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6.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 전까지 집에 돌아가지 아니했으며 옷을 벗지도 않았습니다(느 4:23). 하나님의 일을 저들

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 4:16] 그 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느 4:17]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 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 4:23]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좇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느니라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유다 백성과 같은 헌신을 보이고 있습니까?

7. 유다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했습니다(느 5:1-5). 이는 귀인과 민장들이 유다 형제들에게 취리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저들에게서 취리를 얻는 것은 죄입니다. 나는 형제의 가난을 통해 취리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유다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당신은 가난한 형제에게서 취리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8. 느헤미야는 모든 고리대금 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느 5:10-13). 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가난한 형제를 힘들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는 형제를 힘들게 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를 근절시켰습니까?

▶ (그룹제안):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의 원

[느 5:1]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느 5:2]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느 5:3]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느 5:4]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느 5:5]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말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다

[느 5:10]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밭기를 그치자

[느 5:11]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수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망을 해결했습니까? 당신은 형제를 힘들게 하는 모든 부당한 행위를 근절시켰습니까?

9. 느헤미야는 이전 유다 총독들에 비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느 5:14-16). 또한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같이 행치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느헤미야는 이전 유다 총독들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10.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유다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셨습니다(느 5:19).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며 먼저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구할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 (그룹제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엇을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느 5:12]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 보내고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느 5:13]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 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라도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느 5:14]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이십 년부터 삼십이년까지 십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 5:15]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사십 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느 5:16]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느 5:19]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무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습니까?

11.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네 번이나 똑같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느 6:1-3). 이는 왜 그들이 만나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한 자의 계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만나자고 했을 때 왜 거절했습니까? 당신은 악한 자의 계교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계교를 사전에 파악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체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 봅시다.

12. 산발랏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 거짓된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느 6:5-9). 바사 왕국의 관리된 자로서 왕을 배반하려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면 누구라도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오히려 거짓된 내용이라고 담대하게 부정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참조하는 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나는 담대함으로 참조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까?

[느 6:1]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느 6:2]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느 6:3]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 6:5]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느 6:6]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 6:7]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느 6:8]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바 이런 일은

▶ (그룹제안): 느헤미야는 어떻게 산발랏의 참소함을 해결했습니까? 혹 당신은 다른 사람의 참소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참소를 해결했는지 서로 나눠 봅시다.

13.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외소로 도망쳐 생명을 구하라고 권하였을 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느 6:10-12). 이는 스마야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부러 나를 두렵게 하기 위해 거짓을 꾸민 악한 자의 꾀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스마야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외소로 도망치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만일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왜 당신은 악한 자의 꾀교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악한 자의 꾀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꾀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4. 느헤미야는 자신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 악을 행했던 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느 6:14). 그 명단에는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다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 6:9]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 6:10] 이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 문봉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 6:11]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 6:12]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 6:14] 내 하나님이며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나는 나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자를 경계하고 있습니까?

- ▶ (그룹제안): 느헤미야가 그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 악을 행했던 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왜 그 명단에 선지자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된 것일까요? 흑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선지자는 없나요?

제5장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다

1. 예루살렘 성벽이 52만에 완공되었을 때 모든 대적자들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습니다(느 6:15-16). 이는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케 하셨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낙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예루살렘 성벽이 52일만에 완공되었을 때 모든 대적자들과 사면 이방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두려워하고 낙담했던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2. 유다의 귀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하고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자주 편지한 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느 6:17-19).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하여 선한 자를 대적합니다. 나는 선한 자로서 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유다의 귀인들이 도비야의 선

[느 6:15] 성 역사가 오십이 일만에 엘룰월 이십 오일에 끝나매
[느 6:16]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이니라

[느 6:17] 그 때에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느 6:18]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한도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느 6:19]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하고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자주 편지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백성들이 거하는 가옥은 오히려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느 7:4). 이는 백성들이 자신의 집보다 성벽 재건을 위해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모르지기 성도는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백성들의 가옥은 어떠했습니까? 왜 백성들은 자신의 집보다 성벽 재건에 더 열심을 냈을까요? 저들의 모습과 당신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 7:4]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제 6 장 영적대각성 운동

1.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습니다(느 7:5). 이는 그를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뭔가를 계획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삶입니다. 나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실시했습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의 뜻보다 당신의 뜻에 의해 뭔가를 계획하거나 행하지는 않습니까?

2. 제사장 중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 보계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했을 때 방백이 저들에게 우림과 둠뭉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느 7:63-65).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항상 신분이 정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한 신분을 제시

[느 7:5]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보계대로 계수하게 하신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계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느 7:63]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느 7:64] 이 사람들이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자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느 7:65]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뭉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할 수 있습니까?

▶ (그룹제안): 제사장 중 호바야 자손과 하 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 지성물을 먹 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 문입니까? 혹 당신은 저들처럼 정확한 신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 지는 않습니까?

3. 포로 귀환 후에 인구조사로 헤아림을 받은 사 람들은 주로 예루살렘 본성에 거주하였습니다 (느 7:73). 이는 본성에 거한 사람들 위주로 인구조사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 나님의 나라에 거주해야 헤아림을 받게 됩니 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함으로서 하나 님의 헤아림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포로 귀환 후에 인구조사로 헤아림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 습니까? 왜 예루살렘 본성에 거주한 사람들 의 인구만 헤아렸던 것일까요? 당신은 하나 님의 나라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고 있습니까?

4.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 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 라와 오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 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느 7:73]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 하는 자들과 백성 몇명과 느디 남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주하였느니라

[느 8:]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 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 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 사라와 오사밧과 하난과 블라야 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닫게 했을 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느 8:7-9).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령의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심령이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로 나눠 봅시다.

5.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우는 백성에게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느 8:10). 오히려 기뻐하며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주의 성일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슬픔이나 울음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희락이 넘쳐날 뿐입니다. 나는 주의 성일을 사는 기쁨의 사람입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우는 백성에게 느헤미야는 어떤 말로 권고했습니까? 주의 성일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의 성일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는데

[느 8: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느 8: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 8:10]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의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6.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였습니다(느 8:13). 우리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왜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7.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습니다(느 8:17).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 나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없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켜 행했는데 이는 언제부터 지켜지지 않았던 절기였습니까? 혹 당신은 제대로 지켜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은 없습니까?

[느 8:13]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느 8:17]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1.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열번째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문 설주와 좌우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생각할 때 다음의 두가지 절기를 함께 기억하기 바랍니다.

먼저 유월절은 종교력의 1월 14일(민간력의 7월)에 지켜졌으며, 무교절은 14일부터 1주일간 지켜졌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없는 떡을 먹었는데 이것 역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후 첫번째 안식일 다음날에는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기념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순서는 (1) 먼저 손을 씻고 결례(潔禮)를 행한 후 가장이 축제에 대한 감사(유월절 키두쉬, kiddush)를 드리고 네번에 걸쳐 마시게 되는 물을 탄 포도주 중 그 첫째 잔을 마실 때 기도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 계속해서 채소와 쓴나물을 전체로 먹은(양념에 찍어 먹음) 뒤에는(애굽에서의 고역 상징) 유월절 학가다(Haggadash)와 할렐(Hallel) 찬양의 첫 부분(시 113편 또는 113, 114편)이 이어집니다. (3) 집안의 자녀들이 이 예식의 의미를 묻고(출 13:8) 가장(家長)이 출애굽사건에 비추어서 이러한 상징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4) 포도주를 두번째 마시으로써 본 만찬이 시작되고, 이때 양고기가 식탁에 옵니다. (5) 그 뒤에는 세번째 포도주 잔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축복의 잔'(고전 10:16)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잔을 마실 때 또 한번 감사의 기도가 있게 됩니다. (6) 그때 참석자들은 할렐 찬양의 나머지를 부릅니다(시 114-118편 또는 115-118편). (7) 그리고는 네번째의 포도주 잔을 들이키는 것으로 식사가 진행됩니다.

2. 오순절

오순절은 백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오순'이라는 뜻은 50을 의미합니다. 한 주가 7일로 구성되어 있고 오순절은 모두 일곱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x7=49 다음날인 50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이 백추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은 오순절이 밀추수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강림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오순절 절기때였습니다.

3.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종교력의 7월(민간력의 1월) 15일부터 1주간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생활을 기념하여 지켜집니다.

단순히 광야생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포도나 무화과열매의 결실이 풍성한 절기여서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 초막절기는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절기이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가 행해졌는데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참여하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설교를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8.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였을 때 금식하며 굶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릎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느 9:1-3).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뤄주셨습니다(느 9:7-8). 우리와 맺으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의 언약을 맺으실만한 충

[느 9:1] 그 달 이십사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굶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릎쓰며
 [느 9:2]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느 9:3] 이 날에 낮 사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느 9:7]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느 9:8]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성심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1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느 9:24-26). 배 부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혹 당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당신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이 남아 있는지 살펴 봅시다.

1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보시고 대적자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심으로 그 곤고함이 극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느 9:27).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느 9:24]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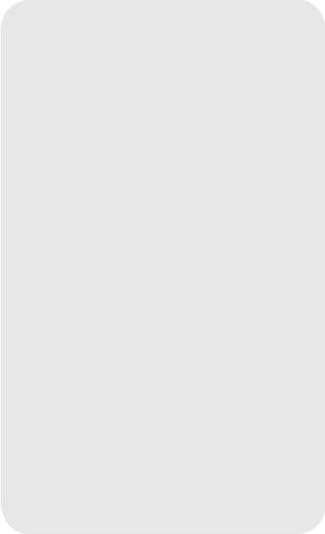
[느 9:25]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느 9:26]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실망하게 행하였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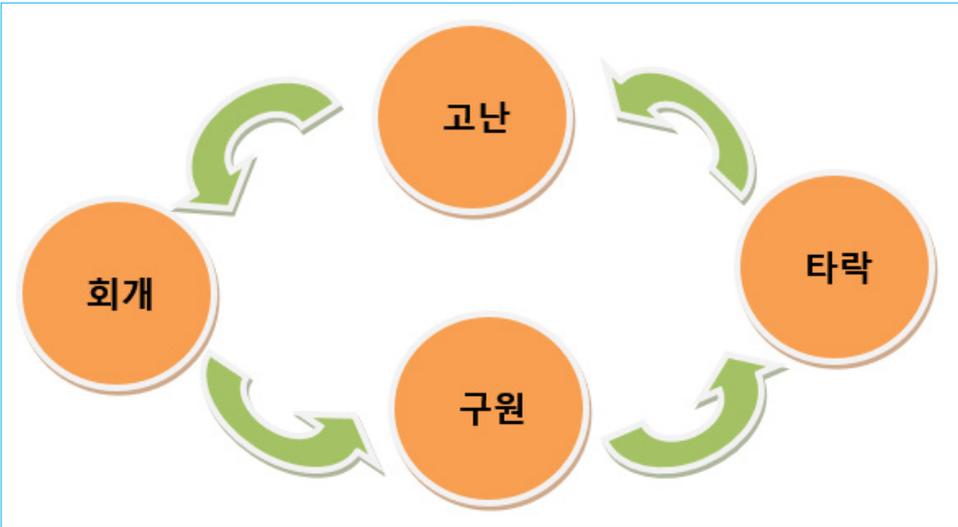
[느 9:27] 그러므로 주께서 대적의 손에 빌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발하시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제거해 주십니다. 나는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며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보시고 대적자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혹 당신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습니까?



영적 악순환



12. 하나님께 대하여 견고한 언약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 중에 가장 첫번째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느 10:1). 느헤미야는 거룩한 언약운동을 선두에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선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선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 대하여 견고한 언약을 세운 사람들 중에 첫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끄는 자입니까?

13. 하나님께 대하여 견고한 언약을 세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으며 이방인 며느리를 삼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느 10:30). 나는 나의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하도록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 견고한 언약을 세운 사람들은 자녀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서약했습니까? 당신은 자녀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까? 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14. 백성의 두목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그 남은 백성중에서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이 예

[느 10:1] 그 인친자는 하가라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느 10:30]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루살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느 11:1). 예루살렘 성 외부에 사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자는 복 받는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에 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백성 중의 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들을 위해 복을 받았을까요? 당신은 거룩한 성에 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거룩한 성에 거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복을 받고 있습니까?

15.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은 용사였습니다(느 11:16).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들은 주로 용사였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용사입니까?

▶ (그룹제안):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어떻게 됩니까?

16. 유다 자손 중에 더러는 향리와 들에 거주했

[느 11:1]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느 11:16]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삼브대와 요사밧이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바깥일을 맡았고

습니다. 유다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중 대표적인 지파로서 저들에겐 팔레스타인 남부지역의 성읍을 할당 받았습니다(느 11:25).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세상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유다 자손 중에 더러는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거하고 있습니까?

17.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좇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느 12:1-8).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좇아야 합니다.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좇는 제사장입니까?

▶ (그룹제안): 포로 귀환 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누구를 좇아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좇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온 제사장입니까? 왜 당신은 아직도 세상에 거하고 있는지요?

18.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제정한대로 반차를 따

[느 11:25]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랴트 아바와 그 촌과 디분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느 12:1]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좇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이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느 12:2] 아미라와 말룩과 핫두스와
[느 12:3] 스가냐와 르훔과 므레못과
[느 12:4]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아와
[느 12:5] 미야민과 마이다와 빌가와
[느 12:6]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느 12:7] 살루와 아목과 할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느 12:8]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갓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맛다냐니 이 맛다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전의식을 준수했습니다(느 12:24-25). 사람의 가르침이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못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레위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감사와 찬양과 제사를 드렸습니까? 당신은 무엇에 따라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 가문의 전통이나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느 12:24]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갓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느 12:25] 맛다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므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안의 공간을 파수하였나니

제사장 24 반열

24반열에 뽑힌 자들(역대상 24: 7-18)

1반열	여호아립	13반열	훤바
2반열	여다야	14반열	에세브압
3반열	하림	15반열	빌가
4반열	스오림	16반열	임멜
5반열	말기야	17반열	헤실
6반열	미아민	18반열	합비세스
7반열	학고스	19반열	브다히야
8반열	아비아	20반열	여헤스겔
9반열	예수아	21반열	아긴
10반열	스가나	22반열	가물
11반열	엘리아십	23반열	들라야
12반열	야김	24반열	마아시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구분하여서 성막의식을 집행케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24반열로 구분시킨 것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수는 대략적으로 2만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24반열로 구분하였는데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로부터 각각 24족장 중에서 제비뽑기로 제사장 직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최대한 공평하게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통해 제사장을 선출했는데 이렇게 제비뽑기 방식으로 섬길 제사장을 뽑은 것은 엘르아살 가문의 족장이 16명이고 이다말 가문의 족장이 8명으로 자칫 잘못하면 불공평하게 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한 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독은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에 의해 파면 당하고 말았으며 사독은 기원전 171년 시리아의 안티오크스(Antiochus)에 의해 짓밟혀 메넬라우스(Menelaus)의 가문으로 넘겨질 때까지 존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섬기는 순서는 달랐지만 하는 일은 동일했습니다.

"[대상 24:19]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와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먼저 제사장 스스로 정결과 거룩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한채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집행했으며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식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발자취

1) 광야시대 및 가나안 정착시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성막을 짓게 하고서 성막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제일 먼저 성막의 이동을 맡는 레위지파가 선두에 서게 하셨습니다. 진을 칠 때는 제일 먼저 성막 먼저 세운 다음에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진을 형성하도록 하셨습니다.

40년의 긴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요단강 물을 밟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가장 먼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먼저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성막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서

7년 1차 가나안 정복기간 동안에 성막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겨우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이룬 후 에서야 비로소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수 18: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나안 정복기간 동안에 성막은 길갈에 아무렇게나 안치되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기간에 성막의 의식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전쟁에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으나 모세처럼 성막의 중요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막과 함께 40년 동안이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모세에 비하면 인생에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성막의 중요성이 모세와 같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2) 통일왕국시대

다윗 시대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은 네 명이 있었는데 그중 첫째와 둘째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의 후손이 대제사장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독은 엘르아살의 후손이었고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이 두 대제사장이 함께 했지만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사독이 홀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꾀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직에서 파면했습니다. 하지만 사독은 기원전 171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Antiochus)에 의해 폐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대제사장직은 메넬라우스(Menelaus)의 가문으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3) 분열왕국시대

솔로몬의 타락에 의해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벨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으며 제사장이 아닌 왕 자신이 직접 분향하는 죄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왕상 13:1]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벨엘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지만 북왕국과는 달리 남왕국에서는 비교적 제사장 규례가 잘 지켜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종교개혁이 단행되었고 성전제사제도와 제사장 및 레위인의 조직이 재정비되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지성물을 생계로 주어 저들로 하여금 제사장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게 하였습니다(대하 31:4-19).

요시아 왕 때에도 종교개혁이 단행되었는데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때부터 율법에 의해 백성에게 언약대로 살게 하였습니다(왕하 22:3-5, 23:1-9).

4)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앗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기간 중에는 그야말로 완전히 제사장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이 이뤄졌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으며 다윗시대와 같이 제사장의 반열을 회복시켰습니다.

"[라 6:18]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또한 제사장의 후손 중 자신의 족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 2:62]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라 2:63]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릴과 돕심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특히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 후에 이방여인과 결혼한 제사장 명단을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성별과정을 거쳤습니다(라 10장 참조).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제사장들은 타락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 2:7]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가 됴이어늘 [말 2:8]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5) 신약시대

이러한 제사장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윗시대에 제정되었던 제사장의 24반열 제도는 신약시대까지 존속되어져 왔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아버지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눅 1:5]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19.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었을 때 느헤미안은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했습니다(느 12:27).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를 중요히 여겼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당신은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또한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했습니다(느 12:30).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이 먼저고

[느 12:27]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느 12: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그 다음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나는 정결함으로 준비함으로써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왜 감사와 찬양을 인도해야 할 레위인들이 먼저 정결의식을 행했을까요? 당신은 먼저 정결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21.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워 공간에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쌓게 했습니다(느 12:44-45). 이는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신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워 공간에 무엇을 쌓게 했습니까? 공간에 그것들을 쌓아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22.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의 두 목이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느 12:46). 우리

[느 12: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공간을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느 12:45]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써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느 12:46]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 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초태생의 바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짐승을 포함하여 사람까지도 모든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헤아린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된 장자의 수는 22,273명이었습니다(민 3:42-43). 그러나 레위인의 1개월 이상된 남자의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민 3:39). 레위인을 대속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273명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수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케 하셨습니다. 한 명당 속전은 5세겔이었습니다. 백성은 속전세를 지불하여 그것을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민 3:46]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이백칠십삼 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민 3:47] 매명어 오 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민 3:48] 그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과 첫 태생은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과 첫 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출13:2-3). 그런데 이스라엘 첫아들과 첫태생 대신 레위인 남자와 레위인의 첫태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소유로 삼은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었으나 그들로 성막과 제사 사역을 감당하기는 힘든 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선택하여 모든 제사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자녀 중 초태생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의 초태생된 자녀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백성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

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
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
음이라 [민 8:18]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
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처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초태생을 대속하여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웠기 때
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에게는 그 어떠한 재물을 취할수도 없
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은 많이 퇴색되어 갔으며
많은 레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레위인을 돌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위인에 대한 초태생 대속제물로 삼음은 오늘날에는 목회자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오
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회자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초태생 대속제물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
도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같은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면서 "모두가 똑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주
장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초태생을 취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초태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도 초태생이 있으
며 우리의 재물 중에도 초태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
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소산의 십일조도 함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산의 처음 난 것과 수입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
하게 하였습니다.

"[느 12: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
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공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
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오래도록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과 무교절 절
기를 지킬 때에 솔로몬 이후에 그토록 큰 기쁨이 없었는데 왕이 백성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명
하자 백성들이 많은 헌금을 가져왔는데 그 헌금을 쌓아 올리는데만 자그마치 4개월이란 시간
이 걸렸습니다(대하 31:7).

"[대하 31:5]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오늘날에도 소산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소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 하나님은 예니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초태생과 십일조는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금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소금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거제물을 레위지와 사람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먹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민 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 18: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민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 18:22]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민 18: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 스스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으면 그 헌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헌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릇된 생각은 그릇된 행동을 만들며 그 사람을 그릇되이 만들게 합니다.

23.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세의 책을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어 살고 있는 그 들을 몰수히 분리했습니다(느 13:1-3).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세의 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을 몰수히 쫓아냈습니까?

24.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해 성전의 방을 내어 줬습니다(느 13:4-9).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악한 자에게 내어줬던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을 악한 자에게 내어주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죄는 어떠한 것입니까? 혹 당신은 악한 자에게 성전을 내어주지는 않습니까?

25.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도비야가 레위 사람들을 위해 양식을 차지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아니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느 13:1]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느 13:2]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은지라

[느 13:3]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석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느 13:4]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느 13:5]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또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느 13:6]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이닥사스다 삼십이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 13:7]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느 13:8]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느 13:9]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 13:10] 내가 또 알아본즉 레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 전리로 도망을 쳤습니다(느 13:10).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레위 사람들이 그 전리로 도망을 갔습니까? 혹 당신은 지금 도망자가 아닌지요? 당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직무는 무엇입니까?

26.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식물을 팔 때에 느헤미야는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습니다(느 13:15-19). 그는 안식일 전 어두워질 때에 문을 닫고 사람을 세워 아무도 짐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느헤미야는 안식일의 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안식일의 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7.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을 때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방 며느리와 이방 사위를 삼지 않겠다고 맹세케 했습니다(느 13:23-25). 나

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느 13:15]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느 13:16]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느 13:17]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 13:18]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를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느도다 하고

[느 13:19]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느 13:23] 그 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느 13:24]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어도 유다 방

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과 혼인을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느헤미야는 두어 사람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을까요? 혹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과 혼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를 쫓아내었습니다(느 13:28). 하나님의 대적자와 함께 하는 자는 악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왜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을 쫓아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보고 악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일까요? 혹 당신은 지금 악한 자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악한 자와 함께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스스로를 변호해 보세요.

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느 13:25]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너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 13: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 | | | |
|-----------------------|-----------------------|-----------------------|-----------------------|
| ▶ 사역학학사과정 | ▶ 목회학학사과정 | ▶ 사역학석사과정 | ▶ 목회학석사과정 |
| - 인원: 00명 | - 인원: 00명 | - 인원: 00명 | - 인원: 00명 |
| - 접수: 온라인 접수 |
|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 - 자격: 대학교 졸업자 | - 자격: 대학교 졸업자 |
|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며 세계성막기도선교회 반장의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www.wslseminary.org(한국어버전 있음) ● 접수처: www.wslseminary.org/apply_kor.html
 ● 문의: 손에스터목사(010-3909-8844) ● 이메일: mail@wslseminary.org